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세계관 교육,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유경상 (CTC 청소년세계관교육센터 대표)

다음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견고히 하며, 나이가 삶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부모, 교사,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책임일 것이다. 다시 말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는 것은 기독교세계관 교육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에 따라 다음세대에게 기독교세계관을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다시 말해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지난 호에서 이야기했던 아이들의 현실, 특히 어떤 세계관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와 위에서 언급한 기독교세계관 교육의 목적을 같이 고려해 볼 때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세계관 교육과정을 세워 볼 수 있다.

교육목적과 아이들의 상황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기독교세계관의 핵심 원리를 가르치고 이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원리들을 그들의 삶 속에 적용시키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다음세대에게 기독교세계관을 가르친다는 것은 기독교세계관의 원리를 이해하고 삶 속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필자는 기독교세계관 교육을 위한 몇 가지 목표들을 세워 보았고 이를 토대로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를 정리해 보았다.

첫째, 기독교세계관 교육의 목표는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기'(worldview)이다.

이것은 기독교세계관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생각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말처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기독교적으로 사교한다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훈련을 통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공(또는 전문분야)이나 일상의 삶 속에서는 기독교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거나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세계관은 일종의 안경과 같다.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관으로 삶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 다시 말해 세계관이 나의 생각, 행동,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자신의 세계관을 파악하고 점검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렇다면 사람마다 세계관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으로서 던질 수 밖에 없는 세 가지 중요한 인생 질문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 이 세상의 기원은 무엇인가? 또는 진리란 무엇인가? 둘째, 이 세상의 고통과 문제는 무엇 때문인가?

셋째,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이들 질문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은 한마디로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주제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세우는 틀을 제공하는 동시에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세계관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기준이 된다. 한마디로 창조, 타락, 구속의 틀은 기독교세계관의 구성요소일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사고를 돕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게 만들려면 기독교세계관의 구성요소인 창조, 타락, 구속의 핵심 내용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틀을 통해 삶과 문화를 바라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한다. 어떤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들을 던지고 생각을 정리하도록 훈련하는 것은 기독교적 사고를 정립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이 "주제"의 창조 목적은 무엇인가?(목적, 본질)
2. 이 "주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진단)
3. "세상"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대안)

둘째, 기독교세계관 교육의 목표는 '신앙과 삶을 연결하기(spirituality)이다.

이것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력은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건의 삶이며 생활영성이라 부르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훈련이라고 하면 예배를 드리고 찬양집회에 참여하게 하며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개인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훈련하며 수련회에 참여케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아이들의 신앙적 기반이 다져지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아이들을 위한 신앙훈련은 앞으로 더 체계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신앙과

삶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신앙은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 여전히 삶의 문제로 고민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것은 성경적 원리가 아닌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신앙 따로, 삶 따로'의 모습을 극복하는 것이 기독교세계관 운동의 목표라면, 그것은 동시에 기독교세계관 교육의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다. 아이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에 대해 기독교적 관점을 제시하고 그 지침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요즘 십대들의 가장 큰 고민인 게임 및 음란물 중독 문제를 기독교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왜 문제인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변화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십대들의 주요 관심사인 친구, 이성교제, 공부, 성(sex), 돈, 시간 등 기독교세계관으로 이해하고 반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셋째, 기독교세계관 교육의 목표는 '문화를 분별하기(culture)이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문화, 특히 대중문화의 기반이 되는 세계관을 분석하고 기독교세계관으로 비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관이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문화 또한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관에 영향을 미친다. 요즘 아이들은 특히 대중문화를 통해 세계관을 제시받고 도전받는다.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는 오늘날 문화 속에 흐르는 주요 세계관이다. 아이들이 이러한 세계관을 직접 교육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이미 영향을 받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미디어는 이것을 더 강화시키고 있다.

복음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자신의 관심사나 재미있는 것에만 반응을 보이는 것, 좋은 말을 해도 지루해 하거나 심지어 잔소리로 여기는 것, 동성애를 죄로 여기기보다 일종의 라이프스타일로 보는 것, 자신

의 이미지를 위해 브랜드에 목숨을 거는 것 등은 오늘날의 문화와 그 속에 자리잡고 있는 세계관에 영향을 받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반증한다.

이처럼 아이들은 대중문화를 즐기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 패턴에 익숙해지고 그 패턴대로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그 패턴을 본받지 않도록(롬 12:2) 대중문화 속에 흐르는 세계관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기독교세계관을 통해 그 안에 존재하는 부분적 진리는 무엇이며, 기독교세계관과 그것은 어떻게 다르며, 그 세계관과 그것이 낳는 열매의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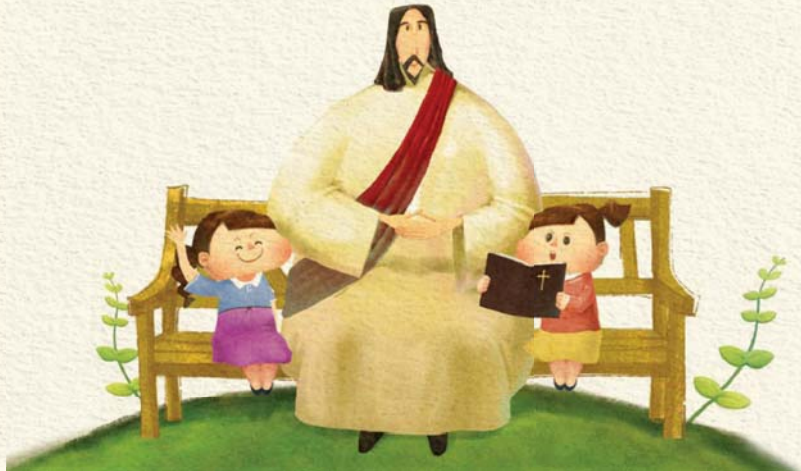
예를 들어 동성애, 환생, 낙태, 인간복제, UFO, K-pop 열풍, 쇼핑중독(shoppingaholic) 등의 문화적 이슈들이 어떤 세계관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기독교세계관으로 볼 때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독교세계관의 핵심원리 뿐만 아니라 문화적 이슈들에 영향을 끼치는 타세계관의 핵심원리를 이해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여기서 타 세계관은 모더

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뉴에이지와 같은 시대정신과 샴머니즘, 불교, 유교와 같은 전통 종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화를 분별하는 기독교세계관 교육은 문화를 해석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기독교세계관을 반영하는 문화 활동 내지 문화 변혁의 사명으로 도전하는 과정도 포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세계관 교육의 목표는 '기독교세계관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Discipleship)이다.

진정한 제자란 스승처럼 생각하고 스승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기독교세계관 교육은 교회와 개인의 신앙 영역에서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특별히 자신의 직업 현장에서 변함없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을 도전하고 가이드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목적, 다시 말해 부르심이 있음을 알게 하고 그것이 목회자나 선교사는 물론, 다양한 전문분야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음을 가르쳐야 한다. 이런 점에서 모든 소명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며 거룩한 것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기독교적 소명관과 직업관 교육도 필요하다.



이러한 소명과 직업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토대로 자신을 향한 구체적인 부르심을 찾고 그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반영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영역들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관, 경제관, 과학관, 교육관 등 각 영역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정리하면서 각 영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타 세계관들이 각각의 영역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이러한 과정은 자신을 향한 부르심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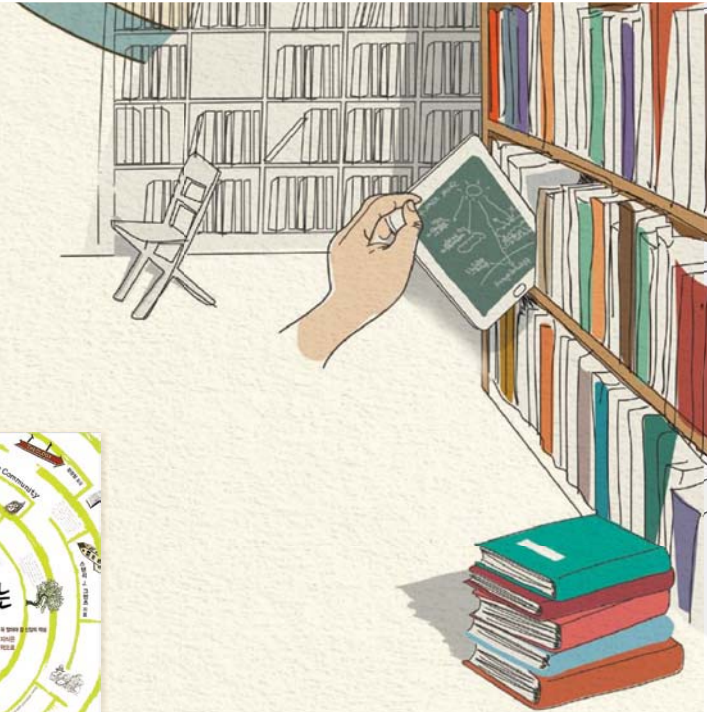
요컨대,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세계관 교육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다음세대가 기독교적 사고를 지닌 그리스도인이 되어 일상 속에서도 기독교세계관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 속에 자리 잡은 타세계관을 분별하고 기독교세계관으로 비판할 뿐만 아니라 문화를 변혁하는 사명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끝으로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기독교세계관 교육의 목표이며 이를 달성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세계관의 교육내용이다.

다음세대를 위한 3년 6학기 기독교세계관 교육과정(안)

	교육 목표	교육 내용
1학기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기 (worldview)	1.1 기독교세계관 1.2 기독교적 사고훈련
2학기	신앙과 삶을 연결하기 (spirituality)	2.1 기독교적 영성관 2.2 기독교세계관과 삶(친구, 이성교제, 공부, 게임, 성(sex), 음란물, 돈, 시간 등)
3학기	문화를 분별하기 1 (culture)	3.1 기독교적 문화관 3.2 타세계관(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뉴에이지 등) 3.3 종교(사머니즘, 불교, 유교 등)
4학기	문화를 분별하기 2 (culture)	4.1 기독교세계관과 문화이슈(동성애, 환생, 낙태, 인간복제, UFO, K-pop 열풍, 쇼 핑크독 등)
5학기	기독교세계관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1 (discipleship)	5.1 기독교적 소명관 & 직업관 5.2 기독교세계관과 인문영역 - 문학, 예술, 경제, 사회, 가정 등
6학기	기독교세계관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2 (discipleship)	6.1 기독교세계관과 자연영역 - 과학과 기술, 환경, 청초와 진화 등 6.2 소명을 발견하고 준비하기



유경상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산하 청소년세계관교육기관인 크리스천싱킹센터(CHRISTIAN THINKING CENTER) 대표로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 기독교세계관 교육프로그램과 교재를 제공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학부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VIEW(벤크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에서 기독교세계관을 전공했고, 백석대학교에서 기독교철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일선에 있는 센터에서 어린이·청소년 세계관아카데미를,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 어린이세계관학교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세아연합신학교에서 기독교세계관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스탠리 그렌츠 저 | 장경철 역 | CUP

스탠리 그렌츠의 〈누구나 쉽게 배우는 신학〉을 읽고

☉ 윤성현 목사(고신대 기독교윤리학 박사과정)